

e-Navi에 대비한 해양안전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

박우경* · 최영** · 박순** · 임영민** · 오병택** · 공현동**

*, ** 국립해양측위정보원

A study on development of Ocean safety information service for e-navigation

Park, WooGyoung* · Choi, Young** · Park, Soon** · Lim, YoungMin** · Oh, BeoygTaeg** · Kong, HyunDong**

*, ** National Maritime PNT Office

핵심용어 : 해양안전, e-Navigation, 모바일 앱, 항로표지, 해양기상, 국립해양측위정보원

Key Words : Navigational safety, e-Navigation, Mobile App, e-Navigate to aids, Ocean Meteorological, National Maritime PNT Office

1. 개요 및 연구목적

본 연구에서는 선박안의 안전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정보의 효과적으로 제공 방법과 해양사고의 80%를 차지하고 있는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정보 전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.

2. 연구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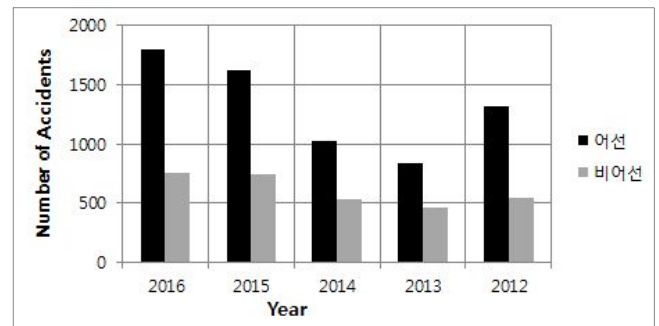
본 연구에서는 선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고의 종류 및 원인을 알아보고,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정보의 종류와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. 선박사고의 분석을 위하여 중앙해난심판원에서 제공하는 해양사고 통계와 사고사례를 이용하였다.

소형선박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정보는 항법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.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‘해로드(海로드)’, 해양기상정보 시스템의 실시간 기상정보 시스템의 운영 개발 현황의 고찰을 통하여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정보 제공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하여 전국 주요 항만 및 연안에 VTS를 이용한 선박관제, 항로표지,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(GICOMS), 해양기상정보 시스템, 위성항법보정시스템(DGPS), 해로드(모바일 앱), AIS 등 선박-육상, 선박-선박간의 안전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다.

항법장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해를 받는 대형선박의 사고는 감소 있으나 어선 등 소형선박의 사고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



소형선박의 사고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, 소형선박의 안전에 효과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(해로드)의 활용은 좋은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.

4. 결론

정부의 선박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중이며, 향후 e-Navigation이 개발되어 선박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선박안전 운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안전정보가 대형 선박 위주가 아니라 소형선박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도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되어 선박의 안전에 기여할 것을 예상된다.

* First Author : pwg100@korea.kr